‘’2066년 최신형 산소통! 오전엔 남극, 오후엔 북극의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뒤, 2066년에는 산소통 광고를 보여 매일 구매버튼을 누르고 있는 나를 발견하지 않을까.

 2016년 대한민국은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먼지를 많이 먹은 날에는 삼겹살을 먹으며 마음의 위안을 받았는데 이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너무 작고 가늘어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폐포까지 유유히 침투해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병을 유발한다고 한다. 물론 피부와 천식, 안구질환도 덤으로 걸릴 수 있다니… 알고 보니 미세먼지는 참 무서운 녀석 이였다.

미세먼지는 온갖 유해 물질로 가득한 중국의 미세먼지의 영향도 받지만, 자연적, 인위적 원인뿐 아니라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담배 연기, 발전을 위 해 만든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등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먼지들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가 편하기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마구 행했던 일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까 언제부턴가 멀리 창밖에 시선을 두면 보였던 많은 건물들이 뿌연 먼지로 인해 하나 둘 사라져가고 매일 밖에서 생활하는 비둘기를 보면 귀신이라도 나타난 것처럼 도망가며,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몸에 부착된 미세먼지 제거가 우선이 되어 버린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기 질 순위는 180국 중 173위로 거의 꼴지나 다름없다. 머지 않아 우리나라도 미세먼지로 인해 밖에 나가면 한치 앞을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촛불이 모여 거대한 물결을 이루듯 나 하나의 작은 습관으로 지금부터라도 깨끗한 공기를 위해 실천하겠는가.. 아니면 50년 뒤쯤.. 밖에서 뛰어 놀 수 있었지.. 보안경을 안끼고 밖에 나가며, 산소통 없이 공기를 마셨다고 이야기 할 것 인가……